

지역규모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의 학교요인 탐색*

정제영(鄭濟永)**

정예화(鄭譽華)***

장선희(張善熙)****

이슬아(李슬아)*****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규모에 따라 고등학생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EDS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t-검정, F-검정 및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내 진로상담실 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 상담전문가 상담실적 건수가 높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학업중단 학생 비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읍면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실과 같은 진로 교육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상담전문가의 상담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상담전문가 상담과 학업중단율과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학업중단, 지역규모, 고등학생, 학교요인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데이터 활용' 기관세션(2016.6.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과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I.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학업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업중단의 원인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광복이후에 나타난 학업중단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이 증가하였다. 현재에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학업중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박래영, 2005). 학업중단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 개인차원에서의 추가 교육에 따른 비용 외에도 순수한 생애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인적자원의 총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학업중단자에 의한 범죄율이 높아져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남기곤, 2011). 따라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을 분석하여 학업중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업 관련 문제로 인해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란, 신혜련, 2005; 이주연, 정제영, 2015; 조아미, 2002). 2015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등학생이 47,070명(0.77%)이었는데, 그 중 학업중단 고등학생이 22,554명으로 47.9%를 차지했다(교육부, 2016).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학업중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2016)의 '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학업중단율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학업중단 사유에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현주와 김용남(2012)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서 학업중단율의 차이가 나타남을 밝혀냈는데, 학교가 소재한 지역별로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 개인요인과 가정요인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의 경우에는 학교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규모가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학교의 소재지가 17개 시·도 중에서 같은 시·도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규모에 따라 학교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이상민, 조창희, 2016),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을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지역규모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

단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특수지역 등 지역규모별로 학교특성에 따른 학업중단율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특수지역 등 지역규모별로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업중단의 개념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학업중단은 학업중퇴, 학교중도탈락, 학업중단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 왔다(금명자, 2008; 박래영, 2005). 학업중단자에 대해서도 중도탈락 청소년, 등교 거부자, 학교 중퇴자, 학교를 떠난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김영희, 허철수, 2012). 학업중단과 관련된 용어들은 2002년에 교육부가 '학업중단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03년에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 42조에서 '학업중단'을 공식 용어로 규정한 이후, '학업중단'이라는 용어와 '학업중단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다(이현주, 김용남, 2012).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의 학업중단은 주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중도탈락이 많았고, 1980년대 이후부터 1995년 이전까지의 학업중단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등과 같은 학교요인에 의해 점차 증가하였으며, 1996년 이후로는 학업중단의 요인이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박래영, 2005). 학업중단의 요인이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학업중단의 개념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옥엽 외(2004)는 학업중단을 개인, 가정, 학교, 사회에 존재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 일탈 현상으로 보고,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하는 것을 거부하여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학업중단으로 정의하였다. 박현선(2004)은 학업 중퇴경험을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닌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졸업장이나 그에 상응하는 등기물을 받지 않은 채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Randel et al., 2008). 금명자(2008)는 학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아서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를 학업중단으로 보았고, 김성기(2012)는 휴학, 자퇴, 퇴학, 제적한 자를 학업중단자로 보았다. 서영석 외(2015)는 학생이 자신의 의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학업중단으로 보면서 학업중단이 발생하기 전 사전 조치로써 개인 또는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과 같은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영희와 허철수(2012)는 학업중단을 중립적인 의미의 용어로 보고, 학업중단의 원인이 개인, 사회 환경 모두를 고려하는 개념임을 강조하였고, 최지연과 김현철

(2016)은 학업중단을 청소년 본인,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이 외에도 잠재적 학업중단에 초점을 두어 학업중단의 개념을 정의하기도 한다(강석영 외, 2011; 김정란, 신혜련, 2005; 조아미, 2002).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업중단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데, 2011년부터 유학을 학업중단에 포함하였고, 2012년까지는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학업중단 학생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2013년부터는 자퇴, 퇴학, 유예, 면제를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를 학업중단학생으로 조사하고 있다(교육부, 2013). 2014학년도부터는 행방불명, 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제적된 학생도 학업중단에 포함하였다(교육부, 2015).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기타), 퇴학(품행), 제적의 사유로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의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학업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각 사유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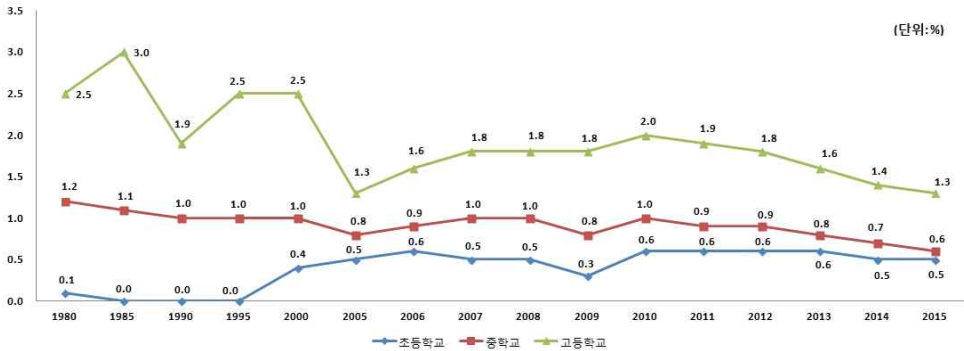
<표 1> 학업중단 사유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설명(예시)	
자퇴	질병	-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질병	
	가사	-	경제사정(채무 등), 가정불화(이혼 등), 주거불안정, 기타(부모간호 등)	
	부적응	학업관련 부적응		학습부진, 학업기피(무동기/무의욕적태도) 등
		대인관계 부적응		학교폭력(따돌림, 갈취, 협박, 폭행 등), 교우관계 미숙, 교사와의 갈등 등
		학교규칙 관련 부적응		두발·복장 단속, 흡연·음주금지 등의 규율에 대한 부적응
		기타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관련 외 사유의 기타 부적응
	기타	-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퇴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퇴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조치로서 퇴학 처분한 경우	
	품행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조치로서 퇴학 처분한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퇴학 처분은 제외)	
제적	제적	자퇴(자발적) 및 퇴학(강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아닌 행방불명, 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킨 자		

* 출처: 교육부(2015).

2. 학업중단 현황

1980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의 고등학생 학업중단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은 1985학년도에 약 3.0%까지 증가하였고, 2005학년도에 약 1.3%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감세를 보이면서 2015학년도에는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1981~2016). 교육통계연보.

[그림 1] 1980~2015학년도 학교급별 학업중단을 추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16)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학년도 지역별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은 세종(1.78%), 강원(1.38%), 부산·충북(1.36%), 서울·충남(1.35%), 경기(1.32%), 전남(1.29%), 광주(1.28%), 대전(1.27%)이 평균(1.2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북(1.19%), 대구(1.15%), 경남(1.13%), 경북(1.11%), 인천(1.09%), 제주(0.92%), 울산(0.77%)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평균 1.26%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을 세부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타(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의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율이 전체 학업중단율의 3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응(학업관련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 학교규칙 관련 부적응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질병(3.9%), 품행(3.5%), 가사(2.2%), 제적(0.9%) 순으로 학업중단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충북이 5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이 17.7%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1학년(2.16%)과 2학년(1.35%)은 평균(1.26%)보다 높았고, 3학년(0.31%)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이를 통해 학업중단 사유별로는 부적응,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중단의 영향 요인은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대로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학업중단에 가정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990년대부터는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비행, 학업에 대한 무관심과 같은 개인요인에 의한 학업중단이 증가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학교요인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만,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박래영, 2005). 이를 통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윤여각 외, 2002) 특히, 학교요인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개인요인 중에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충동조절능력, 우울 및 불안, 학업부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숙영 외(1997)는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조아미(2002)는 자아존중감, 충동조절능력, 가치관, 우울, 불안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오혜영 외(2011)는 가출, 학업 부진 등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윤철경 외(2013)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충동성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학생의 공격성, 공부에 대한 흥미 수준, 흡연 등을 학업중단의 영향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배영태, 2003; 박현선, 2003; 구본용, 유제민, 2003). 강석영 외(2011)는 학업중단의 영향요인을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는데, 위협요인은 학생의 불안정한 정서, 낮은 자기조절력, 낮은 자아개념 및 통제력을 꼽았고,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자기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으로 제시하였다.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으로는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자녀관계, 가정의 결손여부 등을 들 수 있다(강석영 외, 2011; 조아미, 2002; Martinez-Gonzalez et al., 2008). 이 외에도 가정형편(남기곤, 2011), 가정의 낮은 경제 수준, 가정 내 갈등(김범구, 2012), 가정의 수업 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조아미, 2002) 등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규(2004)는 가족의 소득이 낮으면 이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가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의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어머니의 낮은 교육수준은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적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중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오혜영 외(2011)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가족과의 관계, 부모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고, 강석영 외(2011)는 경제적 빈곤함, 양육환경의 문제, 구조적 결손, 가족 간 관계 문제 등을 학업중단의 영향 요인으로 보았다.

학교요인은 최근 들어 학업중단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요인 중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학업문제는 학업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김정란, 신혜련, 2005; 조아미, 2002). 이 외에도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동아리 활동, 학교

의 유형 및 규모 등도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주연과 정제영(2015)은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교우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배영태(2002)는 교사의 부정적인 태도가, 강석영 외(2011)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부정적인 학교 경험, 잦은 무단 결석 등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윤철경 외(2013)는 교사와의 관계, 낮은 학업성적,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 교칙 위반 등이 학업중단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고, 박래영(2005)은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학교 부적응도 학업중단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김범구(2012)는 학교요인을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위협요인으로는 학습내용에 대한 불만, 잦은 결석, 교사에 대한 적대감,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도, 교칙에 대한 거부감, 학교와 학업에 대한 거부감을 제시한 반면, 보호요인으로는 학생의 동아리 활동, 교사의 협조적 태도, 학업에 대한 흥미를 꼽았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을 살펴보면, 학교의 유형 및 규모는 연구에 따라 학업중단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의 자원은 학생 수 대비 교사의 비율이 낮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운영 측면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수록,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할수록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김용남, 2012). 수준별 이동수업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영어교육프로그램 실시 여부도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요인 중에서는 지역의 규모, 환경, 도심과의 거리 등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이 나누어져 지역 간의 환경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오고 있다(류진아, 2015). 학교의 위치가 도시의 빈민지역과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일수록 학업중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현주, 김용남, 2012), 지역 간 사회 및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학업중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역에 따라 유학 및 이민을 사유로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부적응, 비행 등으로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구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김정란, 신혜련, 2005). 학업중단과정에서 지역 사회 내의 진로체험공간과 대안교육기관 등이 부족하여 전문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류진아, 2015).

학업중단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보다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고학년일수록, 대도시일수록 학업중단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Bridgeland et al., 2006; Randel et al., 2008). 이와 같은 차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도심의 환경이 서로 다른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요인

과 관련하여,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도시 여부에 대한 연구와 학교가 소재한 시도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져 왔지만, 지역의 규모가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학교가 17개 시·도 중에서 같은 시·도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규모에 따라 학교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이상민, 조창희, 2016),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요인의 학업중단율에 대한 예측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EDSS: Edu Data Service System)’에서 제공하는 학교정보공시자료(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를 사용하였고, 2015학년도 고등학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결측치(missing value)를 제외한 856개교를 대상으로 지역규모별 학업중단율 현황을 살펴보고,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규모별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규모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총 856개교를 대도시 331개교, 중소도시 323개교, 읍면지역 188개교, 특수지역 14개교로 구분하였고,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특수지역에 따라 학업중단율이 학교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지역규모별로 어떠한 학교특성에 따라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교유형, 남녀공학여부, 학교설립유형, 교과교실제 실시 여부, 자율학교 여부, 수준별이동수업 실시 여부, 영어교육프로그램 여부 등 학교특성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과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F-검정을 활용하였다. F-검정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온 경우에는, Scheffé 검정을 활용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규모별로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에는 SPSS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전에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

선성을 점검하였는데,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는 $-.350 \sim .356$ 이고, VIF는 $1.008 \sim 1.527$ (10 미만)이며, 공차한계는 $.655 \sim .992$ (0.1 이상)이어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성태제, 2014).

IV. 연구 결과

1. 지역 규모별 학교특성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을 분석

1) 지역 규모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을 현황

고등학생 학업중단을 현황을 살펴보면, 856개 고등학교 전체의 학업중단율은 1.15%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331개교 평균 0.95%, 중소도시 323개교 평균 1.04%, 읍면지역 188개교 평균 1.65%, 특수지역 14개교 평균 1.43%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평균보다 낮은 학업중단율을 보였고, 읍면지역과 특수지역은 평균보다 높은 학업중단율을 나타냈다.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비율은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2> 지역규모별 사유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단위: 개교, %)

	학교수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전체	질병	가사	부적응	기타	품행	제적
전체	856	1.15	0.06	0.04	0.55	0.44	0.04	0.02
대도시	331	0.95	0.07	0.02	0.37	0.46	0.02	0.02
중소도시	323	1.04	0.05	0.02	0.50	0.40	0.05	0.02
읍면지역	188	1.65	0.05	0.13	0.92	0.45	0.06	0.04
특수지역	14	1.43	0.08	0.01	0.97	0.32	0.05	0.00

2) 지역 규모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을 현황

고등학생 전체의 학업중단율이 지역규모 및 학교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 학교유형, 남녀공학여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의 경우, 읍면지역(1.65%)이 대도시(0.95%)와 중소도시(1.04%)보다 학업중단율이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유형의 경우, 자율고(0.70%)보다는 일반고(1.17%)가, 일반고보다는 특성화고(2.65%)가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공학여부의 경우에는 남녀공학학교(1.42%)가 남학교(0.78%)나 여학교(0.76%)보다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별 이동수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1.05%)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1.35%)보다 학업중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규모 및 학교특성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차이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856(100.00)	1.15	1.30	
지역규모				
대도시(a)	331(38.67)	0.95	0.83	13.704***
중소도시(b)	323(37.73)	1.04	1.06	a, b<c
읍면지역(c)	188(21.96)	1.65	1.98	
특수지역(d)	14(1.64)	1.43	1.87	
학교유형				
일반고(a)	749(87.50)	1.17	1.34	8.189***
자율고(b)	87(10.16)	0.70	0.54	b<a<d
특수목적고(c)	11(1.29)	1.56	0.89	
특성화고(d)	9(1.05)	2.65	1.77	
남녀공학여부				
남녀공학(a)	498(58.18)	1.42	1.48	27.477***
남학교(b)	198(23.13)	0.78	0.85	a>b, c
여학교(c)	160(18.69)	0.76	0.85	
학교설립유형				
국공립	528(61.68)	1.11	1.21	-1.165
사립	328(38.32)	1.21	1.42	
교과교실제				
미실시	383(44.74)	1.18	1.26	.705
실시	473(55.26)	1.12	1.32	
자율학교				
미실시	586(68.46)	1.16	1.25	.434
실시	270(31.54)	1.12	1.39	
수준별 이동수업				
미실시	270(31.54)	1.35	1.64	2.697**
실시	586(68.46)	1.05	1.09	
영어교육프로그램				
미실시	454(53.04)	1.22	1.38	1.707
실시	402(46.96)	1.07	1.19	

*p<.05, **p<.01, ***p<.001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특수지역 등 각 지역규모별로 어떤 학교특성에 따라 학업중단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에서는 학교유형과 남녀공학여부에 따라 학업중단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유형의 경우에는 F-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분석 결과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공학여부에 따라서는 남녀공학학교(1.20%)가 남학교(0.72%)나 여학교(0.76%)보다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도시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차이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31(100.0)	0.95	0.83	
학교유형				
일반고(a)	265(80.1)	0.98	0.88	2.640*
자율고(b)	59(17.8)	0.73	0.60	
특수목적고(c)	5(1.5)	1.40	0.42	
특성화고(d)	2(0.6)	1.75	0.13	
남녀공학여부				
남녀공학(a)	150(45.3)	1.20	0.95	13.963***
남학교(b)	103(31.1)	0.72	0.45	a>b, c
여학교(c)	78(23.6)	0.76	0.86	

*p<.05, **p<.01, ***p<.001

중소도시의 경우, 남녀공학여부에 따라서만 학업중단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공학여부에 따라, 남녀공학학교(1.24%)가 남학교(0.80%) 또는 여학교(0.67%)보다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5> 중소도시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차이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23(100.0)	1.04	1.06	
남녀공학여부				
남녀공학(a)	195(60.4)	1.24	1.08	9.597***
남학교(b)	69(21.4)	0.80	1.11	a>b, c
여학교(c)	59(18.3)	0.67	0.73	

*p<.05, **p<.01, ***p<.001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에 따라 학업중단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에 따라,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1.30%)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2.11%)보다 학업중단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표 6> 읍면지역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차이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89(100.0)	1.68	2.00	
수준별 이동수업				
미실시	82(43.6)	2.11	2.37	2.691**
실시	106(56.4)	1.30	1.57	

*p<.05, **p<.01, ***p<.001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교과교실제 실시 여부와 영어교육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라 학업중단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교실제 실시 여부에 따라서는,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학교(1.36%)가 교과교실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1.60%)보다 학업중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라서는,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0.35%)가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2.87%)보다 학업중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특수지역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차이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4(100.0)	1.43	1.87	
교과교실제				
미실시	10(71.4)	1.36	1.80	2.628*
실시	4(28.6)	1.60	2.33	
영어교육프로그램				
미실시	6(42.86)	2.87	2.11	2.887*
실시	8(57.14)	0.35	0.44	

*p<.05, **p<.01, ***p<.001

2. 지역규모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 비교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을 지역규모별로 분석하기 전에 전체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을 먼저 분석하였다. 전체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을 분석한 결과, 총 학생수가 많고, 학생자율동아리 참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국영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세 가지 요인 중에서는 국영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고등학생 학업중단율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N=856)

	고등학생 학업중단율_전체		
	β	t	p
총 학생수	-.192***	-6.570	.000
정규교사비율	.033	1.268	.205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률	-.024	-.923	.356
1인당 급식비지원금액	-.008	-.312	.755
교내 진로상담실수	-.009	-.362	.718
내부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	-.005	-.183	.855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	.039	1.517	.130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 참여학생 비율	-.024	-.919	.358
학생자율동아리 참여학생 비율	-.072**	-2.697	.007
국영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583***	21.322	.000
adj. R ²		.442	

*p<.05, **p<.01, ***p<.001

지역규모에 따라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은 회귀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특수지역은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아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만 분석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총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국영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대도시와 동일하게 총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국영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대도시와는 달리, 내부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가 높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읍면지역의 경우, 진로상담실 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가 높고, 국영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총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읍면지역에서는 진로상담실 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와 관련해서는 중소도시의 경우 내부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가 높은 학교에서, 읍면지역의 경우 외부상담

전문가 상담실적건수가 높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지역규모 전체에서 학업중단율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 요인은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국영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표 9> 지역규모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 비교(N=856)

	대도시 (N=331)		중소도시 (N=323)		읍면지역 (N=188)	
	β	p	β	p	β	p
총 학생수	-.149***	.000	-.247***	.000	-.111	.115
정규교사비율	.019	.633	.023	.611	.065	.265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률	.044	.264	-.065	.135	-.051	.386
1인당 급식비지원금액	-.039	.318	.032	.461	-.022	.714
교내 진로상담실 수	.048	.233	.032	.458	-.104 [†]	.074
내부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	-.032	.437	.089*	.046	-.044	.486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	.015	.705	.018	.673	.102 [†]	.087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참여학생 비율	.022	.575	-.063	.145	-.017	.767
학생자율동아리 참여학생 비율	.023	.565	-.054	.213	-.078	.200
국영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689***	.000	.539***	.000	.569***	.000
adj. R ²	.505		.415		.394	

†p<.1, *p<.05, **p<.01, ***p<.001

V. 결론

이 연구는 지역규모별 학교특성에 따른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규모별로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규모에 따라 학업중단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특수지역 등 지역규모별로 학교특성에 따른 학업중단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대도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공학이 남학교나 여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고등학생 학업중단율도 남녀공학이 남학교나 여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학교유형에 따라 특성화고가 일반고나 자율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율학교를 실시하는 학교가 실시하지 않는 학교보다 학업중단율이 낮

게 나타났다. 특수지역의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은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경우,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업중단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지역규모별로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으로는 국영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에서 학업중단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총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총 학생수가 많고, 내부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가 높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진로상담실 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영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과 학업중단율은 모든 지역에서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낮은 학업성취도와 학업문제가 학업중단율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던 부분으로(김범구, 2012; 윤철경 외, 2013; 이주연, 정제영, 2015),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읍면지역의 경우 학교 내 진로상담실 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읍면지역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 사유 중에 학업관련 부적응을 포함하는 부적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업중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로지도 및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서우석 외, 2007), 읍면지역의 경우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해 진로상담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내부 및 외부 상담전문가의 상담실적건수가 높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율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이 연구가 횡단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고, 추후 연구를 통해 정확한 영향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영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은 모든 지역규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선행연구에서도 학교요인 중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김정란, 신혜련, 2005; 정제영 외, 2015; 조아미, 2002)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남기곤, 2011; 이현주, 김용남, 2012).

둘째,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도움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읍면지역에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 진로상담실 수가 학업중단율이 낮아지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도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박현선, 2004; 윤철경 외, 2015; 이현주, 김용남, 2012).

셋째, 내·외부 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와 학업중단율이 가지는 영향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내부상담전문가는 학교상담실, 교내 Wee클래스 소속 상담전담인력을 말하고, 외부 상담전문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타학교 Wee클래스 등 학교 외부 상담인력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전문가 상담실적건수가 높은 학교에서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인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상담이 실제적으로 학업중단율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는 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요인 및 가정요인을 포함하는 학생수준의 변수를 함께 분석하지 못했고, 설문문항이 정해져 있는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업중단율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여, 학생수준의 변인과 학교수준의 변인을 함께 분석하고, 이 연구에서 변인에 포함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함께 활용한다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영, 양은주, 방나미(2011).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19(1), 89-125.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5. 29.).
- 교육부(2013). 매년 6~7만명 발생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 조사항목 개선. 교육부 보도자료(2013. 4. 22.).
- 교육부(2015). 2014학년도 학업중단학생, 전년대비 8,662명(14.2%) 감소. 교육부 보도자료(2015. 9. 8.).
- 교육부(2016). 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전년대비 4,836명 감소. 교육부 보도자료(2016. 9. 29.).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1981~2016). **교육통계연보**.
- 구본용, 유제민(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8(1), 133-146.
-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99-317.
- 김미숙, 정효철, 유희균, 이현서, 박상근, 신수영(2012).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범구(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성기(2012). 한국과 미국의 학업중단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초등교육연구**, 25(2), 141-160.
- 김순규(2004). 가족 환경 요인이 청소년학업 중퇴에 미치는 영향 -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3), 43-63.
- 김영희, 허철수(2012).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1991년-2011년. **상담학연구**, 13(2), 1013-1028.
- 김옥엽, 이연숙, 원유미(2004). 전라북도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의식 및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상담학연구**, 5(3), 725-741.
- 김정란, 신혜련(2005). 부산시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위탁현황 분석. **인문학논총**, 10, 71-96.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남기곤(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40(3), 63-94.
- 류진아(2015). 도농복합지역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질적 연구: 생태체계적 요인 및 결정적 사

- 건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163-187.
- 박래영(2005). 광복 60년 학업중단의 원인·실태·정책의 변화양상과 향후과제. **청소년복지연구**, 7(2), 5-21.
- 박현선(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3, 75-104.
- 박현선(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 배영태(2003). 중·고생의 중도탈락 인과모형 검증과 변별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 대학교.
- 서영석, 이은정, 김재훈, 박성화, 최유리, 최정윤(2015). 학업중단위기청소년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407-436.
- 서우석, 정철영, 이광호, 채영병, 허영준, 김재호(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개선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연구**, 26(1), 106-133.
- 성태제(2014).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서울: 학지사.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윤철경, 최인재, 김강호, 유성렬, 김태화, 손희정(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상민, 조창희(2016).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규모 적정화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교육·녹색환경연구**, 15(1), 40-48.
-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40, 1-223.
- 이주연, 정제영(2015).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학교밖 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1), 239-267.
- 이주연, 정제영(2015).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간의 '힘겨루기'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학연구**, 53(3), 89-118.
- 이현주, 김용남(2012). 고등학교 학업중단을 변화의 지역별, 학교유형별 현황 및 학교 관련 요인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3(1), 149-185.
- 정제영, 강태훈, 박주형, 변수용(2015). **학업중단 예측모형 사용자 가이드북**. 교육부, 울산광역시

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최지연, 김현철(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103-132.

Bridgeland, J. M., Dilulio, J. J., & Morison, K. B. (2006). *The silent epidemic: Perspectives of high school dropouts*. Civic Enterprises.

Martinez-Gonzalez, R., Symeou, L., Alvarez-Blanco, L., Roussounidou, E., Iglesias-Muniz, J. & Cao-Fernandez (2008). Family involvement in the education of potential drop-out childre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pain and Cyprus. *Educational Psychology*, 28(5), 505-520.

Randel, B., Moore, L., & Blair, P. (2008). *High school dropout and graduation rates in the Central Region* (Issues & Answers Report, REL 2008. No. 04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Evaluation and Regional Assistance,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Central.

* 논문접수 2016년 11월 3일 / 1차 심사 2016년 12월 9일 / 2차 심사 2017년 2월 24일 / 게재승인 2017년 3월 10일

* 정재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jychung@ewha.ac.kr

* 정에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를 졸업하고, 동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동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coye@paran.com

* 장선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congdol486@nate.com

* 이슬아: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seula0303@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he School Factors Affecting on High School Students' Dropout According to the Regional Scale*

Chung, Jae Young**

Jeong, Yehwa***

Jang, Seon Hee****

Lee, Seul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chool factors that influence high school dropout rate depending on the local scale, and to look for ways to reduce high school dropout in terms of education policy.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EDSS(Edu-Data Service System) from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The analytical methods are utilized to t-test, F-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chool dropout rate tended to be higher in schools where the ratio of underachievement students was high. Second, in rural communities, the school dropout rate tended to be low in schools where the number of career counseling classrooms was high. Thir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rural communities, the school dropout rate tended to be high in schools where the number of consultations with professional counselors was high. Three conclusions have been deduced from this study. First, to reduce the underachievement rates, there is a need for care and support for the underachiev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provide career education for students in the rural commun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counseling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dropout and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counselor.

Key words: School Dropout, Regional Scale, High School Students, School Factors

* This study is revised version of article which was presented in 2016 Kore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 Researche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Research Associat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